



2,3,5,6학년 학생 소변검사 실시 안내

삼례동초등학교
2021. 4. 23.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학생 소변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단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아동들이 결석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검사 후 추후관리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일시 : 2021. 4. 28. (수) 오전

2. 검사 대상 : 2,3,5,6 학년(검사 당일에 결석하지 않기)

3. 검사 기관 : 한국학교보건협회 전북지부 검사요원 학교 출장검사 실시

4. 검사 비용 : 1인 990원(학교운영비에서 지급)

5. 집단 요검사시 검사항목: 단백, 잠혈, 당, PH

6. 검사 시 주의사항

가. 검사 전일 지나치게 많은 야채나 과일, 비타민, 영양제 등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검사 2-3일 전 지나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 처음 나오는 소변은 흘려보내고 중간 소변을 소독된 개인용 소변검사 스틱에 묻혀 검사요원에게 제출합니다.

라. 생리중인 학생은 검사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립니다.

마. 검사결과 처리 - 유소견자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7. 집단 소변검사서 당뇨 양성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무료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8. 소변검사의 중요성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

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집단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 형성,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각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만성신장염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쇠약, 빈혈, 다뇨증 등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전문의를 찾을 때는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신부전은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료 외에 약물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2021. 4. 23.

삼례동초등학교장